

# “생명복제 욕망일뿐이다”

정호영교수 '구사론' 등 경전 근거로 경고

## 복제기술 발달 자연질서 교란 실상을 그대로 봐야 함서 해방

정호영 교수는 '인간복제와 관련된 불교의 몇 가지 관점'에서 "불교적 우주관이 잘 나타난 구사론에서 우주생성의 원초적 힘은 인간의 활동(사트라 카르만)에서 비롯된다"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종을 출현시키는 생명공학도 창조주의 주체로서 인간을 떠올리게 하지만 불교의 세계관·인간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영 교수는 "복제기술을 통해 새로운 종(種)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생물의 다양한 종의 보편적 상호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호영 교수는 생명공학이 질병을 치료할 것이라는 '유익함'으로 접근해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생명공학의 유혹을 뿌리치는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고통은 생로병사의 존재 상을 '있는 그대로(如實)' 보지 못하고 애써 부정할 때 생겨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실하게 본다는 것은 연기(緣起)의 세계에 대한 참

## “도심포교당 공간조형 살리자”

21일 동국대 대각전 개원 세미나서 주장

현대인들의 귀의처이며 수행공간인 도심 포교당, 도심포교당의 건축물은 실용성·대중성·편의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교예술과 교리 조화를 이룬 조형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손교수는 △불교미술대전의 제도적 보완 △불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안목 △작가들의 구도자적 내면 세계의 승화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개교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 대각전을 개원한 동국대가 도심 포교당의 공간조형을 실행중이라고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인을 위한 도심포교당의 공간조형'을 주제로 마련한 대각전 개원 세미나에서 조각·회화·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이 같이 주장했다.

'현대적 도심포교당의 공간조형'을 발표한 김개천씨(이도건축 대표)는 "현대 불교건축의 최요는 불교문화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대각전은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킨 도심 포교당이 선례"라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은 "현대 도심 포교에 있어서 공간 조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도심 포교당은 벽 쪽으로 불단을 붙여 많은 사람들이 앉게 하고 수행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강당식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 포교당을 건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리에 입각한 시설설치 △노약자와 장애자의 편의를 배려한 대중성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신도들의 운영 참여 등을 꼽았다.

'불교조각의 현대적 과제'를 발표한 김영중씨(연희조형관장)는 "현대인의 미적 문화적 감각을 염두에 두고 불교미술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불교조형의 현대화를 위해 가칭 '한국불교조형연구회' 설립을 제안했다.

손연철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불교미술의 전통과 현대성'에서 "지금도 사찰 건립·조형 등은 과거의 양식과 관행만을 답습해 획일성과 속박에 빠져 있다"며 "불교미술의 전통과 현대적 표현과의 조화

### 학술단신

#### 불교 영어특해 강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불교영어특해 초급과정' 강좌를 마련한다. 김종명박사(UCLA대 불교학)가 <Arouse Your Mind and Practice(발심수행장)> <Admonitions to the

다운 이해이며 반야(般若)의 지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아함경) '무의왕자경'은 이러한 욕망의 위험성을 '칼날에 묻은 꿀'로 표현했다"며 "보편적인 고통이라는 것도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의왕자경'에서 부처님은 유용성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쳤고 불교의 생명관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이며 유물론적 관점이나 기계론적 개념을 모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생명은 '자비' 또는 '사랑'의 활동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복돋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 '복제양의 탄생과 유교의 입장'을 발표한 이동희교수(계명대 유학)는 "인간복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장기이식도 동물로 하는 데 그쳐야 한다. 과학이 상업자본과 결합할 때는 가혹할 위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교수(서울대 철학)는 '생명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서 "생명조작과 인간복제는 근본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며 "현대의 과학과 의학은 기초학에 불과하며 인간과 인간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 美 불교계 에이즈 예방위해 개설

####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

'불교 AIDS 프로젝트'는 에이즈 예방과 구제를 위해 美 불교계가 개설한 단체. 이 사이트는 AIDS에 감염된 환자, 가족, 간병인들을 위해 소식, 의학, 서적,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 '에이즈와 명상' '에이즈와 반야' 등의 에세이 수편을 비롯해 (죽음과 죽어가는 것) <평화로운 존재> 등 불교와 죽음을 다룬 16편의 서적 인내가 불거리. 또 미국 불교계가 에이즈에 배려하는 봉사과 구제의 실질적인 활동 소식도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개설한 스티브 페스킨드는 "이 단체는 한 사람의 환자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육체·정신적인 도전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가상 공간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했던 달라이 라마파 이 단체의 간병인과 환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美 불교계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는 의사를 비롯하여 육체 노동자, 심리학자, 명상 훈련가 등 60여명의 자원 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http://www.wenet.net/~b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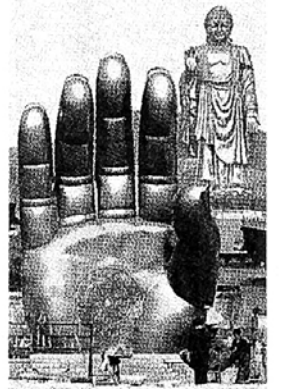
## 홍콩,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로

홍콩은 99년부터 부처님 오신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해 홍콩종교계는 물론 전세계 불교계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홍콩 행정위원회는 18일 '홍콩은 종교 자유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8일)을 새 공휴일로 지정 시켰다. 이와 함께 노동절(5월1일)도 신규 공휴일로 지정됐다.

홍콩 6백40만 인구 중 공식 불교도는 약 83만명. 인구의 80% 이상이 도교를 신봉하고 있으나 도교 자체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시민 대부분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일이 일상화돼 있어 홍콩 불교인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콩불교단체는 지난 70년대부터 홍콩 정부에 부처님 오신날의 국경일 제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홍콩 불교연합회의 국경일 지정요구 신청서에는 기독교 등 6대 종교도 적극적으로 지지, 동참했다고 한다.



### 중세 세계 최대 청동불상

높이 88m, 무게 8백t의 세계 최대 청동 불상(사진)이 지난 16일 중국 강소성 무석시의 시안청 사원에 세워졌다. 고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국무원 종교사무국 관리들과 중국불교협회 및 공산당 관계자, 국내 및 외국에서 온 불교신도 등 1만여명이 이날 불상 봉안식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인간 유용론(有用論)이 생명복제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용성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발달에 따라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최근 '인간계통과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정호영교수(충북대 철학과)가 22일 현대문화종교연구소 제17회 종교문제세미나에서 '구사론' 등 불교경전을 근거로 인간복제 위험을 경고해 주목된다.



위덕대는 20일 진각종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밀교문화연구원을 개설하고 밀교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밀교, 신라 무속신앙 포용”

진각종 창종 50년 밀교학술회의 열어

조선불교 명맥 유지 기여  
만다라사상 국토도량학

6세기경 신라에 처음 전래된 밀교는 당시 토착무속신앙을 극복하고 신라인을 귀법(歸法)케 했으며, 조선조의 억불정책에 맞서 불교를 지탱시켜 준 등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위덕대 부설 밀교학연구원(원장 경정이) 20일 개최한 진각종 창종50주년 기념 밀교학술회의에서 장석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서윤길교수(동국대 불교학) 등이 발표했다.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밀교의 특성과 법신사상'을 발표한 서윤길교수는 "6세기경 한반도에 처음 소개된 밀교는 당시 토착신앙의 반발을 극복하고 무속들을 불법에 귀의시켰다"고 설명했다. 서교수는 "신앙의 사회화에 성공을 거둔 신라의 밀교는 만다라 사상을 수용해 국토 전체를 도량으로 삼고 법당 뿐 아니라 산, 들, 바위까지도 부처님과 보살들을 모시는 등 한국불교의 특징을 형성, '통섭성'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통섭성은 즉신성불의 이상과 짝을 이루면서 '즉사이진(即事而眞)' 행하는 일마다 모두 진여와 진개'를 통해 '한국불교의 대표적 의례집인 <석문의법>에는 밀교 사상에 근거한 진언다라나 무려 1백17칙이 나 있다"며 "이와같이 밀교는 다라니 신앙을 민중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5백년간 억불속에서 불교의 명맥을 지키는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르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르스님. 일타르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르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I.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III. 배움과 삶 / IV. 밝은 삶을 여는 계 /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VI. 회두 드는 법 / VII. 미하반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르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르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심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8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르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경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 주변의 문화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르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연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애법 無礙法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르스님의 육상법문 테이프 육상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포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동심요리 전화 : (02) 587-6612·582-6612 팩스 : (02) 586-9078